# 159억 흑자 광주수영대회 조직위 이달말 해산

다음달부터 청산 법인 전환, 대회 청산 절차 밟아 '저비용 고효율' 국제대회…도시 브랜드가치 높여

'저비용 고효율' 국제대회로 꼽혔던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 원회가 이달 말 해산된다.

16일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에 따르면 오는 31일 공식 해산과 함께 청산 법인으로 전환해 대회 청산 절차를 밟게 되다.

조직위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해 지난 6~15일까지 조직위원 46명을 대상으로 서면 집행위·총회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산결의안, 잔여재산 처분, 청산인 선임, 청산법인 사무실 설치 등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조직위는 8월부터 조영택 현 사무총장을 청산인으로 하는 청산 법인 체제로 전환한다.

이달 말 조직위가 공식 해산하면 2016

년 5월 19일 창립총회 이후 4년 2개월의 여정을 마치게 된다.

조직위 해산은 평창 동계올림픽(7년 5 개월), 인천 아시안게임(7년 6개월) 등 다른 국제대회 보다 3년 이상 짧다.

국제수영연맹(FINA)과의 사무 관계도 해외 참가선수단 항공료·숙박비 등 정산, 도핑검사·경기 운영 등 대회 지원 결과제출, 최종 영문 결과보고서 제출로 모두마감됐다. 2016년 9월부터 대회 준비과정과 운영 기록을 담은 기록물은 연말까지국가기록원으로 순차 이관해 국제대회 기록유산으로 활용된다.

코넬 마르쿨레스쿠 FINA 사무총장은 지난 6일 조직위에 서신을 보내 "대회 성 공은 정부, 광주시, 시민, 조직위 덕분이 었고 광주 대회가 앞으로 수영대회의 본 보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평가했다.

대회 운영비 최종 정산결과 159억원의 흑자를 결성했다. 시설비를 포함한 광주세계수영대회 총 사업비는 2036억원으로, 평창동계올림픽(4조2853억원) 대비 5%, 인천 아시안게임(2조376억원) 대비 11% 수준에 불과했지만, '저비용 고효율' 대회를 치르면서 흑자 대회라는 성과를 거뒀다.

광주시는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 당시 건립한 수영장을 주 경기장으로 사용하고 대학 운동장에 하이 다이빙 경기장을 임 시 시설로 설치하는 등 경기장 신축을 최 소화해 저비용 대회로 치렀다.

대회 물자와 물품은 임대해 활용하고, 기업 후원과 입장권 판매수입, 대회 참가 자 등록비 등 자체수입도 기대 이상으로 확보했다. 이처럼 '저비용'으로 대회를 치르면서 운영비 정산 결과 보조금 800억원

(국비 299억원·시비 501억원), 기타 수입 567억원 등 수입은 1367억원, 지출은 1208억원으로 159억원 흑자가 생겼다.

이번 대회 개최로 한국은 동·하계 올림 픽, 월드컵 축구, 육상 선수권, 수영 선수 권 등 5대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모두 개 최한 4번째 국가가 됐다.

특히 광주는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와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잇달아 성공적으로 개최해 전 세계적으로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국제 스포츠도시로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사전 교육을 통해 국제 의전 기본 소양을 갖춘 자원봉사자 3126명을 배출해 대회 기간 통역, 수송, 시상 등 31개분야 현장 곳곳에서 활약했다.

조직위는 대한수영연맹과 2년에 걸친 협업으로 선수권 69명, 마스터스 296명 등 366명의 국내 심판을 양성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코로나19확산 여파…전남체전 1년 연기

내년 영광서 개최

코로나19 사태로 전라남도체육대회가 사실상 1년씩 연기됐다.

전남도와 전남도체육회는 최근 김준성 영광군수, 허석 순천시장 등 전남체육대 회 개최 예정지 관계자들과 만나 순차적 연기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올해 전라남도체육대회 개최지인 영광군의 순차적 연기 요청을 전남도와 내년 개최지인 순천시가 받아들여이뤄졌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체육대회는 올해를 건너뛰고 내년에 영광에서 열리게 된다. 전남도체육회는 제59회 전남체전 관계기관 업무협의 5차례를 비롯 경북에서 개최 예정이던 제101회 전국체육대회의 내년 순연 개최를 놓고 논의 끝에 순연이라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와 함께 올해 보성에서 개최될 전남장 애인체육대회와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과 전라남도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전라남도 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도 순연하게 됐다.

조만간 전라남도체육회는 이사회를 열어 전남체육대회 등 전남종합체육대회 일정을 연기하기로 최종 확정짓게 된다. 김재무 전남도체육회장은 "전남종합체육대회가 순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영광군과 보성군, 순천시 등 관계기관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체육인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다 함께 이겨내자"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코로나19로 전남의 체육인들이 그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 껏 펼칠 수 없게 돼 안타깝지만 정부 당국의 지침에 따르고 도민의 안전과 참가 선수단 보호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다"며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한마음으로 협력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도민들의 이해와 동참"을 당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봄철 산불방지 예방·대응' 최우수상

전남도는 산림청 주관 올해 '봄철 산불 방지 예방·대응 우수기관 평가'에서 '최우 수상'을 수상한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에 대해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각지자체의 봄철 산불방지 역량 집중과 산불예방·대응 이행 강화를 위한 산불방지 정책 등 일련의 추진 과정을 모두 평가했다.

평가항목은 산불예방 홍보와 산불진화 대응, 산불방지 협력도 등 총 9개 지표로 각 분야별로 평가가 이뤄졌다. 전남도는 산불방지 과태료 부과실적과 산불 가해자 검거율, 소각 산불없는 녹색마을 캠페인 참여 등에서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산불방지 과태료 부과는 전국 1196건 (2억800만원) 중 114건(3200만원), 산불 가해자 검거율은 전국 평균 33%를 웃도는 48.4%를 기록했다. 또 소각 산불없는 녹색마을 캠페인 전국 2만2258개 참여마을 중 전남이 5726개 마을을 차지한 실적을 거뒀다. /윤현석기자 chadol@

#### 광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광주시는 "코로나19 지역감염 대응을 위해 어린이집·유치원이 휴원할 경우에 이용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 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서비스 이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 시간을 정부 지원 한도(연720시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휴원을 결정한기간에는 서비스 이용자의 부담이 크게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 정부 지정기관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보미에게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등은 연간 720시간 범위에서 정부 지원을 받는다. 720시간 초과 이용 시 비용은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시 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려 2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모든 어린 이집과 유치원은 휴원하도록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흥국생명, 광주에 100석 규모 고객센터 개소

흥국생명이 광주에 100석 규모 고객센 터를 열기로 했다. 광주시는 16일 시청 비 즈니스룸에서 흥국생명과 고객센터 투자 협약을 했다. 흥국생명은 이달 중 광주 동 구 흥국생명 빌딩에 고객센터를 마련해 연말까지 60명, 내년 상반기 40명 상담사 를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2011년 지하 5층, 지상 15층 규모 빛고을 고객센터를 준공해 여성 일 자리 창출에 나섰다. 현재 68곳 고객센터 에서 7306명이 근무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i



5·18역사공원 조성사업 시삽

16일 오후 광주시 서구 쌍촌동 옛 505보안부대에서 열린 5·18역사공원 조성사업 착공식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김용집 광주시의회 의 장, 서대석 서구청장, 김희중 광주대교구 대주교 등 참석자들이 공사 시작을 알리는 시삽을 하고 있다./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전남도, 어촌뉴딜 공모 신청 후보지 '맞춤형 컨설팅'

수산·어촌, 항만, 관광 등 분야별 전문가 초빙 자문…9월까지 3차례

전남도가 2021년 어촌뉴딜사업 공모를 위해 시·군에서 신청한 어촌 후보지를 대 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에 나선다.

오는 9월부터 진행되는 2021년 어촌 뉴딜사업 공모 평가에 대비해 수준 높은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다수가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수산·어촌, 항만, 관광, 경관·디자인, 공동체 등 분야별 전문가들을 초빙해 직접 자문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컨설팅은 9월까지 모두 3차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계획서 작성 요령 및사업내용의 적정성 등 자문, 지역특화 사업계획 발굴, 주민 발표 평가에 대비한 발표 요령 및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도 병행학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 어촌뉴딜사업 대 상지로 전국에서 모두 50개소 내외를 선 정할 계획으로, 지난 5월 공모계획을 발표 한 바 있다. 최종 대상지는 오는 11월말까지 서면 및 현장평가를 거쳐 12월 중 확정된다.

전념도는 지금까지 중도에 대미해 72개 소의 사업대상지를 발굴했으며, 사업 추 진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주민 참 여형 사업 분위기 확산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교육을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와 연 계해 추진했다.

'어촌뉴딜사업'은 전국 300개의 어촌· 어항에 약 3조원을 투입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특화 개발을 추진하는 해양수산부 역점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두 차례 추진된 공모에서 전남은 2년 연속 최다(전국 190개소 중 63개소, 33%) 선정돼 사업비 6072억 원(국비 4250억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박용학 섬해양정책과장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대상지별 특성 을 반영한 차별화된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추진하겠다."며, "앞 으로 진행될 해수부 평가에도 적극 대응 하여 우리 도 신청 사업이 다수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에서 30~40분 소요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수목장 묘지이장 문의